

KIA, 빅리거 올라 영입...네일과 '막강 원투펀치' 기대

2022년 오클랜드서 데뷔...3시즌 선발로 뛰며 존재감 과시 193cm 키·150km대 구속·탈삼진 능력 탁월 '왕조 재건' 속도

KIA 타이거즈가 제임스 네일과 새 얼굴 아담 올러로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한다. KIA가 16일 아담 올러(Adam Oller·우투우타·30)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 미국 텍사스주 컨로우 출신의 우완 아담 올러는 신장 193cm, 체중 102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큰 키에서 내리꽂는 150km대의 빠른볼이 위력적이다. 각이 큰 변화구를 바탕으로 탈삼진 능력도 뛰어나다. 올러는 2016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에 뛰어들 뒤 2022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빅리그 데뷔에 성공했다.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마이너리그(이하 트리플 A)에서 4시즌을 보낸 올러는 메이저리그 통산 36

경기(선발 23경기)에 나와 5승 13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4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57경기(선발 45경기)에 출전해 21승 9패 2홀드 평균자책점 5.01의 성적을 냈다. 올 시즌에는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선발로 8경기에 나와 42.1 이닝을 소화했으며, 2승 4패 평균자책점 5.31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18경기(선발 9경기)에 등판해 4승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5.30을 기록했다. 앞서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붙잡는 데 성공한 KIA는 올 시즌 빅리그에서 8경기를 모두 선발로 뛰 올러를 영입하면서 막강 원투펀치를 구성하게 됐다. 여기에 위기에서 더 강해진 마운드도 기대된다. 올 시즌 KIA는 선발진의 줄무늬로 고전했다.

윌 크로우와 이의리가 나란히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일찍 전력에서 이탈했고, 이어 운영철과 네일이 각각 척추 피로골절과 턱관절 골절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됐다. 선발진의 부상 공백에서 기회를 받은 우완 황동하와 김도현이 착실하게 역할을 하면서 KIA 마운드에 힘을 보태했다. 우승 행보에 힘을 실어준 두 사람은 '경합'이라는 자산까지 쌓으면서 2025시즌 5선발 싸움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이의리의 재활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시즌 중반 이의리의 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KIA는 검증된 네일과 올 시즌 빅리거로 활약한 올러를 바탕으로 '왕조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편 외국인 원투펀치 구성을 끝낸 KIA는 새 얼굴로 외국인 타자를 재출 예정이다. KIA는 3시즌을 함께 했던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대신해 빅리그에서 3시즌 연속 20홈런을 장식한 오른슨 '파워히터' 패트릭 워즈덤의 영입을 앞두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마이애미에서 선발로 8경기를 뛴 우완 아담 올러가 16일 KIA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손흥민, 토트넘 새 역사 썼다

사우샘프턴 상대 1골 2도움 '원맨쇼'...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68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32)이 '황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1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며 2경기 연속골과 함께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의 주인공이 됐다. 토트넘은 16일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 2024-2025 EPL 16라운드에서 5-0으로 승리했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4-2-3-1 전술의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전반전만 뛰면서 1골 2도움을 기록, 직전 15라운드 첼시전 득점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작성하며 시즌 6호골(정규리그 5골+유로파리그 1골)을 맞췄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도움 2개를 추가, 토트넘 입단 이후 EPL 무대에서 68개의 도움을 쌓으며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선수' 1위로 올라섰다. 토트넘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린 선수는 1992~2004년 활약한 대런 앤더턴(67개)이었고, 손흥민이 이날 2개의 도움을 쌓으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더불어 이날 승리로 토트넘(승점 23)은 최근 공식전 5경기 연속 무승(정규리그 1무 2패·유로파리그 2무 1패)의 부진을 씻고 귀중한 승리와 함께 10위로 올라섰다. 반면 사우샘프턴(승점 5·1승 2무 13패)은 최악의 위기에 벗어나지 못했다. 손흥민의 저력이 잘 드러난 경기였다. 토트넘은 전반전 킥오프 37초 만에 제드 스펠스의 패스를 받은 제임스 매디슨의 선제 결승골이 터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갔다. 추가골은 손흥민이 책임졌다. 손흥민은 전반 12분 오른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자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정규리그 5호골이자 시즌 6호골의 순간이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EPL 통산 125호골을 작성하며 니콜라 아넬카(프랑스)와 함께 역대 EPL 통산 득점 공동 18위에 올랐다. 골맛을 본 손흥민은 도우미로 변신했다. 손흥민이 전반 14분 왼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가 도미니 솔란케의 몸에 맞고 나오자 굴절된 볼을 대안 쿨루세브스키가 마무리하며 3-0으로 앞서 갔다. 토트넘은 전반 25분 팀의 네 번째 득점이 터져 나왔고, 손흥민이 어시스트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내준 패스를 파페 사르가 잡아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전반 추가 시간 매디슨이 또다시 손흥민의 결정적 패스를 잡아 자신의 멀티골과 함께 이날 경기의 다섯 번째 골을 책임졌다. 전반에만 1골 2도움의 '폭풍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체력 안배와 휴식 차원에서 브레넌 존슨으로 일찌감치 교체됐다. 전반에 5골을 쏟아낸 토트넘은 후반에는 추가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토트넘의 손흥민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 토트넘 홋스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류지혁, 4년 26억에 FA 계약

삼성 라이온즈가 내야수 류지혁(사진)과 4년 최대 26억원에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16일 "류지혁과 계약금 3억원, 4년 연봉 합계 17억원, 4년간 인센티브 합계 6억원 등 총액 26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류지혁은 두산과 KIA를 거쳐 지난해 7월 포수 김태균과의 트레이드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인 류지혁은 자전 수능 능력은 물론 리더십에서도 좋은 모습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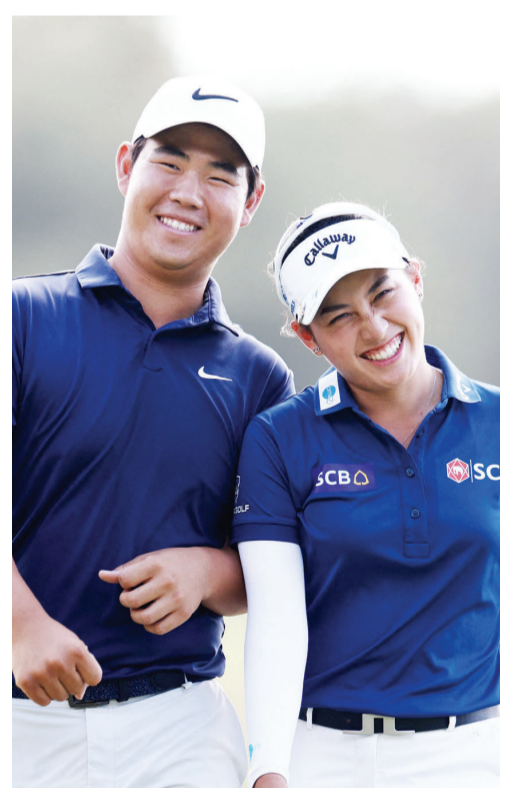


류지혁은 "삼성에서 계속 야구를 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 트레이드되고 나서 열린 삼성이라는 팀에 녹아들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구)자욱이형과 (강)민호형이 계속 같이 하자고, 꼭 필요하다고, 어디까지 말라고 얘기해줬다"며 "한국시리즈에서 진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김주형·티따꾼 골프 혼성대회 준우승

그랜드 쏜턴 인비테이셔널

김주형과 지노 티따꾼(태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공동주관 2인 1조 남녀 혼성 대회 그랜드 쏜턴 인비테이셔널(총상금 400만달러)에서 준우승했다. '통과 제리'라는 팀 이름으로 출전한 김주형과 티따꾼은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합작했다. 최종 합계 26언더파 190타를 적어낸 둘은 제이크 냅(미국)과 페티 타와타나깃(태국)에게 1타 뒤진 2위에 올랐다. 3라운드 54홀로 치러진 이 대회는 첫날은 스크램블, 2라운드는 포섬, 그리고 최종 라운드는 티샷한 공을 바퀴 치는 변형 포블 방식으로 열렸다. 둘은 내내 선두권을 달렸지만, 김주형이 17번 홀(파5)에서 만들어낸 4m 이글 퍼트를 놓지 못해 공동 선두에 오를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웠다. 지난날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때 18번 홀(파4)에서 우승에 쐬기를 박는 바디를 뽑아냈던 티따꾼은 18번 홀(파4)에서 2.4m 바디 퍼트 잡아 약사이 바티아와 제니퍼 컵초(이상 미국)를 3위로 밀어냈다. 김주형은 올해 정규시즌이 끝난 뒤 참가한 두 차례 이벤트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을 거뒀다. 그는 지난 9일 끝난 타이거 우즈 주최 하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스코티 셰플러(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주형과 티따꾼은 56만달러의 상금을 받아 28만달러씩 나눴다. 1라운드부터 선두에 나섰고 2라운드에서도 1위를 지킨 냅과 타와타나깃은 이날도 7언더파 65타를 합작해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동문인 냅과 타와타나깃은 우승 상금으로 50만달러씩 받았다. /연합뉴스

제4회 광주시 장애인공공스포츠 클럽교류전 성료

부산·광양 등서 200여명 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교류의 장이 광주에서 펼쳐졌다. '제4회 광주시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거점형) 클럽교류전'이 지난 11일과 14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이번 교류전은 3개 지역(광주·부산·광양)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호인 200여명이 탁구와 배드민턴 종목에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11일 열린 탁구 경기에는 지역 내 빛고을클럽, 행복클럽, 서구스포츠클럽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14일 스탠딩 종목과 좌식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 배드민턴 경기에는 부산 라라클럽, 광양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광주 공공스포츠클럽이 출전해 스포츠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상득 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회장은 "지속적인 교류전 개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빛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장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배드민턴·탁구·파크골프 종목으로 6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생애주기별, 수준별, 장애유형별 시설·전문지도자·다중목적 프로그램을 통합제공한다. /서민경 기자 minky@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